

(주)선진, 양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 지난 12월 14일 (주)선진이 대한양돈협회에 양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좌로부터 양돈협회 이종길 상무, 최영열 회장, (주)선진 김대현 이사, (주)선진한마을 민동기 대표이사)

(주)선진이 지난 12월 14일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에 양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주)선진 김대현 이사와 (주)선진한마을 민동기 대표이사는 양돈협회를 방문하고 최영열 회장을 만나 양돈산업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양돈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열 회장은 “선진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해마다 기금을 쾌척,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기탁해준 기금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소중한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현 이사와 민동기 대표이사는 이번에 기탁한 양돈산업 발전기금이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선진은 2004년도에 양돈산업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탁하고, 2005년도에도 1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 왔다. **양돈**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양돈산업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 지난 12월 20일(수)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대한양돈협회에 2천만원의 양돈산업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김기훈 박사, 유병우 전무, 최영열 회장, 정학상 사장,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강화순 이사)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회장 김기용)가 지난 12월 20일 분당 소재 퓨리나코리아 회의실에서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과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산업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퓨리나코리아 정학상 사장은 최영열 회장에게 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하며, “양돈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료업체를 비롯한 모든 양돈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영열 회장은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에서 해마다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성금 및 양돈산업 발전기금을 전달, 뜻 깊게 쓰고 있다”고 화답하며 “올해 기탁해주신 기금도 양돈산업 발전 및 이웃사랑 전달 등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내가만든 돼지고기 국민건강 한국건강